



은방울꽃 / *Convallaria keiskei* Miq.

구분	설명
생물분류	식물
속국명	은방울꽃속
과국명	백합과

과명	Liliaceae
일반특징	<p>요약설명 : 백합과 여러해살이풀로 잎과 꽃을 감상하기 위해 기르기도 한다. 전국 각처의 산지에 분포한다. 일본, 중국, 동시베리아에서도 볼 수 있다.</p> <p>분포지역 : ▶한국, 일본, 중국, 동시베리아에 분포한다.▶전국 각처의 산지에 분포한다.</p> <p>형태 : 속근성 여러해살이풀로 관엽, 관화식물이다.</p> <p>크기 : 꽃대는 높이 20~35cm정도로 자란다.</p> <p>꽃색 : 백색</p> <p>개화기 : 5월, 4월</p> <p>잎이 나기 전 3월 하순쯤에 밑부분에서 얇은 막처럼 되어 있는 칼집 모양의 잎이 나와 자란다. 그 속에서 2개의 잎이 나오고, 밑부분을 서로 열싸 안아 원줄기처럼 된다. 잎몸은 끝이 뾰족하고, 긴 타원 모양 또는 달걀 같은 타원 모양이다. 가장자리는 밋밋하며, 겉면은 진한 초록색이고 뒷면은 연한 하얀색을 띤다.</p> <p>꽃은 4~5월에 하얀색으로 피고, 종 모양이다. 끝이 6개로 갈라져서 뒤로 젖혀진다. 꽃대는 칼집 모양 잎의 안쪽에서 나온다. 꽃차례에는 10개 정도의 꽃이 달린다. 꽃과 싹을 보호하는 작은 잎은 얇은 막처럼 되어 있다. 또한 넓은 선모양 또는 창 모양이며 꽃자루보다 짧거나 같다. 꽃자루는 굽어 있으며 수술은 6개이다.</p> <p>열매는 장과고 둥근 공 모양이다. 붉은색으로 익는다.</p> <p>줄기에는 털이 없다.</p> <p>땅속줄기가 옆으로 길게 뻗고 군데군데에서 땅 위로 싹이 나온다. 밑부분에는 수염뿌리가 있다.</p> <p>산지에서 무리지어 자란다. 식물이 썩어 만들어진 유기물이 많은 땅, 비교적 진흙이 적게 섞인 보드라운 땅에서 잘 자란다. 물빠짐이 좋고 적당한 습기가 있어야 좋다. 포기나누기를 하거나 씨앗을 뿌려 번식시킨다. 식물 전체가 독을 가지고 있다. 잘못 먹으면 심부전증을 일으켜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극독식물이다.</p>